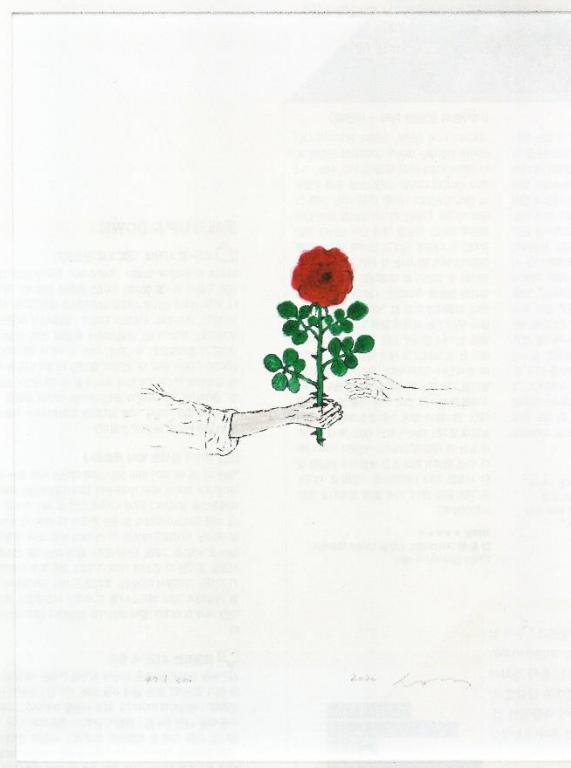


사우의 화면

December, 2020 | 권은경 에디터

page 1 of 2

W E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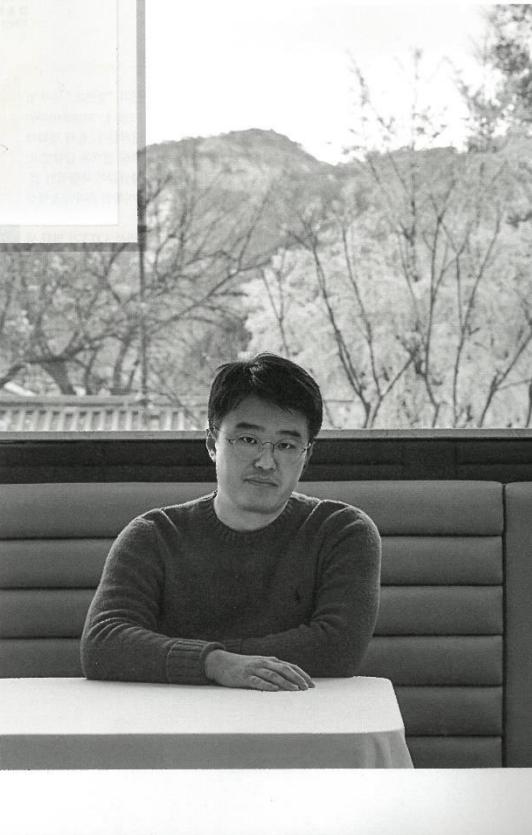


1

사우의 화면

독특한 회화 액식을 구축하고 있는
화가 문성식과 국제갤러리가
작품을 열걸고리 삼아 []
'유망암 인식 향상 캠페인'에 동참했다.
꽃 한 송이와 함께
문성식 작가를 만났다.

Photographer YOUNGMO CHOI
Editor EUNKYOUNG KWON



약 1년 전, 국제갤러리가 보내온 전시 초대장은 책상 위 방치된 우편물을 속에서 단연코 눈길을 끌었다. 꽃과 이파리, 나비와 새가 있는 그림. 그리고 여기에 소개된 전시 제목, 〈Beautiful. Strange. Dirty〉. 그림 속 '예쁜 것'들을 두고 〈아름다움, 기묘함, 더러움〉이라 명명한 제목이 선언처럼 다가왔기에 유심히 바라본 것 같다. 화가 문성식이 4년 만에 선보인 그 개인전에는 작은 크기의 드로잉 연작부터 갤러리의 가수 심이가 5년여 이상인 대형 작품까지, 상당한 양의 그림이 있었다. 관람객이 관아듣지 않았고, 전시는 예조 정한 기간보다 연장했다. 시기야 지나 전시된 작품이 빠른 속도로 판매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단단하게 가는 문성식의 다음 전시가 언제쯤 열릴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더블유〉의 제15회 유망암 인식 향상 캠페인 준비가 한창일 무렵, 국제갤러리와 문성식 작가가 이 자선 캠페인에 기부로 마음을 보태고 싶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문성식의 광작 작품 판매는 물론 기부금을 조성하는 건 이 뿐만 아니라 반갑고 의미 있는 일이다. 문화는 1980년생인 문성식이 스물다섯에 '메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쇄연소 참여 작가라는 복지안 수식을 달고 미술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이후, 최근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이다. 작가의 오래 사년 뷔스인 작품 한 점이 갤러리 한 사람의 품으로 갈 때, 판화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향한다. 캠페인의 목적이 '영향'임을 생각하면, 작품이 여러 사람의 품으로,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캠페인과 미술이 만난 예술적 영향력이 퍼지는 이미지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유망암 인식 향상 캠페인'에 대해 선해 듣고 서 이쁜 이에게 꽃을 주는 일을 미울었어요. 캠페인과 꽃이라는 회랑이 서로 연결된다니 느꼈어요.' 작품명 '주고 받다'는 꽃은 같은 문성식의 그림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떠난다. 회면 중앙에 있는 꽃 한 송이와 꽃을 주고 받기 위해 뻗어 있는 두 손만으로, 이것은 메시지가 된다.

“세상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동시에 존재하요 아름다움과 추험도 그렇습니다. 예술에 대한 고민을 분들고 싶다가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마음이 들면, 환상에 빠져 있다가도 확 리얼리티로 돌아와요. 삶에는 양기적인 면이 공존하죠. 그래서 ‘웃프다’라는 말도 생겼지요.”

“개인작은 꾼데 후 많이 친한 상태있어요. 힌동안 폭 쉬고 싶었지만 잘 못 쉬었죠. 천시만년 근일은 아니더라도 소소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저는 능수능란히 여기 끗하나니(웃음).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힌다시만 궁리를 하느라, 다음 작업으로 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요.” 눈상식을 만나기 전날까지 그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인리는 대구아트페어에 전시작을 마무리했다. 전시작은 <아름다운, 기묘한, 벼룩을> 전에서 선보인 정미 작곡 ‘그날 살’이 그간의 모색을 거쳐 조금 변화한 버전이다. ‘마티에르’가 더 세웠으니, 스크래치도 늘었습니다.” 갠버스에 삼은 침을 하느를 베친 후 송곳, 터터, 금이번에 쓰는 해과 등 날카로운 도구로 굽고 메이네는 기법, 그 방식은 요즘 계속 신화시키는 주인 그는 두텁고 단단한 노토잉을 만드는 ‘제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 면에서 재해보나 웃이 악하다는 인식이 있는 드로잉이 그의 화면에서는 두꺼운 상으로 존재한다. “‘내의 소재는 일부러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 삶에서 자연스럽게 떠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걸 만드는 방식에 대한 고민은 오히려 편이에요.” 저지 않은 현대미술이 아름다운 방식으로 예술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 분신식은 보다 명랑한 시각 언어를 골랐다. 작품이라 누구에게나 내릴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솔직한 이야기라고 그는 말한다. 그렇게, 동양과 서양의 역사 속에서 그에게 손 내린 것들이 있다.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파에오 멘과 프란체스카의 벽화와 프랑스 파스코의 동굴 벽화, 그리고 한국의 신학자. ‘르네상스 시대의 완비안보다 그 이전의 필자 소규석 불완전한 것들을 데며를 1:1로요. 서는 오래된 벽화들이 상당히 모던해 보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빛거진 색과 질감이 오히려 모던했고, 기기서

살다가 ‘이제 더 무슨 소용인가’ 싶은 마음이 들면, 환상에 빠져 있거나도 차리얼리티로 돌아와요. 삶에는 양기적인 면이 공존하죠. 그래서 ‘웃프다’라는 말도 생겼잖아요.”

문성식은 몇 번 째부부 부산에 내려가 살고 있다. 면이웃되는 자신을 기우기 위해, 작업에 매진하기 위해 환경을 바꾸고자 한 선택이다. 그가 사는 빌라에 작은 정원이 있다. 거기서 정장을 입고 기른다. 정자는 가장 괴짜하게 민개한 이후 ‘속사’ 주제였다. “5월 동안만 정말 화려하고 6월부터 주지지기 시작해서 7월부터 해체된다. 예전처럼, 예쁘나는 밟아 갈 수 없는 기초.” 삶에서 저질로 떠나온 소재란, 그가 살아온 과정과 이유들로 인해 사업수법에 재해보는 것들이다. 문성식은 한국의 지구화 패턴한 일상을 낳은 유화를 인필로 ‘끌어내기나라’(제 12번 풍경), 메스킨을 통해 섭한 이산가족의 이별 장면 중 ‘선’의 모습에 인상을 받고 그를 강조한 채로 드로잉을 그려기도 했다.

(필자) 과거에는 연예 세밀화다. 주로 그렸다. 의사의 병원을 순서리는 배경을 기여 해외 없이 보여주는 연관은 이용하면, 비교적 오인되지 않은 성신의 선을 그릴 수 있었는데, 그의 정작에 민개한 정이거나 나비와 벼룩들에서 세상의 매태포를 발견하기까지, 그에겐 으드는 둘러싸인 짐에서 자란 어린 시절이 있다. ‘동네에서 우리 집이 유명했어요. 유명하게 꽃들이 피어 있는 집이었거든요. 어버지가 꽃을 잘알 좋아하신 나머지 농사를 지으면서 반데다 꽃을 심는 행당한 부모셨죠(웃음). 집 안에 레인만 화초가 많았고, 할머니의 산수는 맥인용과 영산옹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회화라는 회화에는 그런 사람의 시간과 풍물과 의지가깃들이 있다. 뜻, 연필, 송곳, 무엇을 쥐는 그걸 잡은 이의 움직임이, 육체가 반영된다. 문성식은 재나기듯이 스크래치를 ‘발버둥’이라고 표현했다. 그림의 두터운 층을 만드는 셋수 등의 재료가 가지 성질, 본인의 의지로 귀여워지거나 물감의 마른 정도나 도구에 따라 모두 다른 혼작은 작기의 백퍼센트 통제할 수 없는 일의이다. 과거에 얻던 세밀화로 가학적 일면 선세한 드로잉을 그렸던 문성식은 이제 우연성이 깃든 자일 방식을 가져온다. 그런 신 하나에 배수와 미술 교육은 거치며 어쩔 수 없이 고착화를 그 무엇이든 떨쳐내리는 그의 본부임이다.

우리는 마주 앉아 그가 좋아한다는 경제 청선의 ‘박연 폭포’를 감상해봤다. 청선, 박수근, 이중섭은 그가 자가로서 동경하는 이들이다. ‘이 폭포를 보세요. 폭포는 절대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폭포 중기장, 길은 내 것처럼 단순화하고 악간은 우습하게 그렸어요. 이것이 그의 해석입니다.

니다. 지금 봄은 준스럽거나 유틸리하지 않은 현대적 해설을 험 거예요. 이 벌어진 형태와 띠의 봇물들이 이 시대가 주구한 미학의 성수단 보여줘서 아주 좋아합니다.” 한편 시장을 살던 박수근과 이중섭의 그림에는 소비미의 정수기 남겼다. 문성식은 그렇게 한 시대를 관통하는 작가의 그림, 즉 개인과 시대가 모두 놓여든 그림을 이상적인 예술로 삼는다. 그의 관심이 날간 적기 예찬을 듣는다. 빠, 동양과 서양, 현대의 재료와 고전 미술의 양식. 양가적인 가치들을 그림에 담는 그의 태도가 이 혼종의 시대 정신과 부합하는 것 같다는 말을 신뢰하는 듯했다. 당분간 그는 작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이런 쪽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 하던 대신 갖은 시련과 새길 기우며 새로운 기법을 더 연마할 것이다. ‘똑같은 산을 그린다고 해도 산마다 뛰워들이가 다릅니다. 의식하거나 계획하는 게 아니라 너 훌륭한 선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세우는가 그 면면이 외각을 줄이고 인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지, 생기를 잊지 않으면서 창작을 이어간지,는 궁금해요. 하지만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은… 그냥 하루의 뜻이라고 물론 끝나겠습니까(웃음). 참 미스터리하고 마법 같은 일예요.”■

SPONSORED BY KWKOREA GALLERY
1. 1994-1995년, 35×24cm, 캔버스에 채색, ©KWKOREA GALLERY
2. 2005년, 35×25cm, 캔버스에 채색, ©KWKOREA GALLERY
3. 2013년, 35×25cm, 캔버스에 채색, ©KWKOREA GALLERY

